

투데이EBS 현대운문B형
 <MADE BY 유대종>

AB1★. 김영랑 「독을
 차고」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a)독 안 차고 살어도 머지 않아 너마저 가 버리
 면
 억만 세대(億萬世代)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虛無)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덩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 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1. '벗'은 비록 '나'와는 다른 가치관을 지녔지만 나의 의지를 돕는 친구이다.(o,x)
2. 두 삶의 자세를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하나의 삶의 자세를 부각했다.(o,x)
3. '벗과의 대화'는 시적 화자가 '독'을 차게 되는 상황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o,x)
4. '허나'는 내면의 의식이 무상감에서 결연한 의지로 돌아서는 것을 나타내는 시어이다.(O,X)
5. 화자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지를 보이고 있다.(O,X)

AB2. ★문정희 「겨울
 일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영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 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문 한번 열지 않고
 반추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가 바르게 묶인 것은?
 ①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② 명사로 시를 마무리 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④ 영탄적인 어조로 이별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2.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겨울'은 이별의 시간으로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는 계절적 배경이다.
 ② '영주'는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종교에 의지했던 절망적인 시간을 의미한다.
 ③ '편히 지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감을 느낀 데 대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④ '나무'들이 서로 기대어 숲이 되는 상황은 화자와 대조적 상황으로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하는 소재이다.
 ⑤ '반추동물'은 이별을 고프고 있는 화자의 현 상황을 구체화한 표현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
기>

자연을 동질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는 두 존재가 모두 생명을 낳고 번성시키는 원초적 활동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문정희를 비롯한 여성 시인들은 임과의 사랑과 생명의 탄생이라는 여성의 체험을 자연의 거대한 운행원리에 적용시키면서 여성과 자연의 동일화를 극대화시켰다. 이들의 작품에서 대지는 흔히 모성을 상징한다. 봄을 맞아 대지 위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과 겨울이 되어 죽음으로 잠드는 것은 여성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생명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과도 같다. 이에 따라 여성이 겪는 갈등이나 슬픔은 종종 자연의 황량함이나 파괴로 나타나며, 이러한 자연의 회복 또한 여성성의 회복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① ‘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의 번성’을 의미하는군.
- ② ‘벌거벗은 나무가 숲이 되는 것’은 ‘임과의 사랑’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처지와 유사하군.
- ③ ‘독백’은 죽음으로 잠드는 화자의 상황과 조응하여 이별 후 화자의 쓸쓸한 내적 정서를 드러내는군.
- ④ ‘나무’가 벌거벗은 근본적인 원인은 자연의 파괴며 이는 물질주의적 문명으로 말미암은 것이겠군.
- ⑤ ‘겨울’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시점임과 동시에 여성의 생산성이 소멸된 시점이며, 그렇기에 이는 화자에게 ‘죽음’의 느낌을 반추하게 되는군.

B1. 윤동주,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王朝)의 유물(遺物)이기에
이다지도 욱일까.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滿二十四年一ヶ月)
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 1. ‘거울’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아 관찰의 도구로 화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한다.(o,x)
- 2.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그 날을 의미하며, 이 시점은 현재의 시점이다.(o,x)
- 3. ‘밤’은 자아성찰의 시간이면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이다.(o,x)
- 4. ‘즐거운 날’에 참회록을 쓰는 시기는 2연에 쓰는 참회의 글과 사건의 시제가 다르다.(o,x)
- 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

작품은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창작 당시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 문화적 현상 등 사회 문화적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독자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도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때 쓰였다는 점에서 상황의 구체적 의미를 통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 ①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 망국의 욱된 자아를 지칭하는 것이야.
- ② ‘내 얼굴’은 일제 강점기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아의 모습이겠어.
- ③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 되겠군.
- ④ ‘밤’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상황이면서 반성의 시간이겠군.
- ⑤ ‘발바닥’은 1연의 파란 녹과 대응하여 당시 시대적 억압으로 인해 희생된 자들의 한을 드러내고 있군.
- ⑥ ‘파란 녹이 낀 거울’이 정상적 거울이 아니며 이는 당시의 부정적 역사 인식과 관련이 있군.

B2. 김기림, 「금붕어」 -작가연계

어항 밖 대기(大氣)를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 생각한다.

금붕어는 어느새 금빛 비늘을 입었다 빨간 꽃이 파리 같은

꼬랑지를 폈다. 눈이 가락지처럼 뻐어져 나왔다. 인젠 금붕어의 엄마도 화장한 따님을 몰라 볼 게 다.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영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별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즐겨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大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금붕어는 그러나 작은 입으로 하늘보다도 더 큰 꿈을 오므려

죽여버려야 한다. 배설물의 침전처럼 어항 밑에는

금붕어의 연령만 쌓여 간다.

금붕어는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하늘보다도 더 먼 바다를

자꾸만 돌아가야만 할 고향이라 생각한다.

1. '화장한 따님'은 '금빛 비늘'과 유사한 시어로 화자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 경지를 의미한다.(O,X)
2. '떡가루'는 '배설물'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연계되어 의미 없는 삶에 대한 부정성을 함축하고 있다.(O,X)
3. 전설과 같은 소문을 통해 결국 금붕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어항 속에 있다는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O,X)
4. '유리벽에 머리는 부수는 행위'는 굴종과 억압에 순응하는 것이다.(O,X)
5.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o,x)

B3. 박재삼 「흥부 부부상」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비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1. 명령형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O, X)
2. '문제'는 화제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시어이다.(O,X)
3. '거울면'은 시적 대상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을 드러

시어이다.(O,X)

- 4. 3연의 '본 웃음 물살'은 1연의 '웃음살'과 대응되어 부에 대한 흥부 부부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시어로 보아야 한다.(O,X)

B4. 박목월, 「산도화1」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1. 색채이미지를 통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O,X)
- 2.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O,X)
- 3. 공간의 이동에 따라 느껴지는 화자의 절망감이 잘 드러나 있다.(O,X)
- 4. 정적인 가운데 동적인 이미지의 조화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O,X)
- 5. 각 연의 압축적 배행이 주제적 정서인 엄숙함을 강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O,X)

B5. 이상, 「거울」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참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귀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원손잡이오.
내악수(握手)를받을줄모르는---악수를모르는원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
거울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나는지금(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늘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외로된사업(事業)에골몰할게요.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반대(反對)요마는
또깨닭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진찰(診察)할수없으니
떡섭섭하오.
-이상, 「거울」

- 1. '거울'은 자아 간의 경계이며, 안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상 세계의 자아로 상징된다.(O,X)
- 2. 자아 간의 분열과 화해를 순차적으로 다루고 있다.(o,x)
- 3. 거울 속의 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을 갖는 거울 밖의 나가 존재한다.(O,X)
- 4. 4연에서 알 수 있듯이 '거울'은 본래적 자아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본질적 자아에 대한 앎을 불충분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O,X)
- 5. 대상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답답해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O,X)

B6. 김광규, 「상행」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 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향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를 보며

끄덕여 다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
 쾌하냐.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 다오.
 놀라울 때는 다만 '아!' 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1. '원색의 지붕'이 고향치는 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다.(O,X)
2. 흥미 있는 주간지'는 미묘한 정치 문제를 다룬 잡지를 뜻한다.(O,X)
3. 시 전반을 반어적으로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당대인들의 순응적 자세를 뜻하며, 시적 화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O,X)
4. 다양한 심상을 사용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주고 있다.(O,X)
5. **전반을 반어적으로 본다면**, '맥주나 콜라'는 현실의 갈증을 해소하고 위로해 주는 **긍정적** 의미가 있다.(O,X)

B7. 최승호, 「대설주의보」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찌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

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마을 길 끊어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찌그마한 숲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
 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최승호, <대설주의보>

1. 위 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굴뚝새'는 억압적 현실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연약하고 순수한 존재이다.
 - ② '눈보라'는 힘없는 민중들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폭압적인 존재이다.
 - ③ '솔개'는 '눈보라'와 마찬가지로 '굴뚝새'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존재이다.
 - ④ '산짐승들'은 '등산객들'을 길 잃게 만드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존재이다.
 - ⑤ '소나무'는 힘겨운 현실 속에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고립되고 절망적인 존재이다.

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大雪注意報]>의 특징은 뛰어난 사실적 관찰로, 그 관찰의 대상은 극도로 막혀 있는 삶의 상황이다. 최승호는 이 작품에서 상징성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상황의 복합적인 양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소멸·파괴·고통의 정서를 바탕으로 작가는 철저하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 ① ' '가 내려진 마을의 모습에 대한 사실적 관찰이 작품의 바탕이 되고 있다.
- ② '눈보라'를 '군단', '계엄령'에 비유함으로써 뚜렷한 상징성을 획득하고 있다.
- ③ '굴뚝새'와 '솔개'를 '눈보라'에 맞선 저항적 존재로 등장시켜 상황의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길 잃은 등산객들'이나 '굶주리는 산짐승들'을 통해 소멸·파괴·고통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외딴집'에 '다투어 몰려오는' 눈보라의 모습을 통해 폭압적인 독재 권력을 고발하고 있다.

3. 위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시어를 통해 삶의 지혜를 깨우치고 있다.
- ③ 명령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구체적인 마을 지명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이상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B8. 김소월 「길」

어제도 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였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곽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1. '까마귀'는 화자가 다다르고자 하는 이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O,X)
- 2. 시적 화자는 현재 내적 갈등의 상황에 있다.(O,X)
- 3. 단호한 어조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O,X)
- 4. 특정한 음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O,X)
- 5. '기러기'가 화자의 상황에 부러워하고 있음이 작품 전반에 드러나 있다.(O,X)

B9. 이성부 「산길에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들이
지금 조릿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들이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나지 않았더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이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
 고
 길 따라 그들이 따라 오르는 일
 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
 다

1. '바람'은 화자가 겪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환기하는 소재이다.(o,x)
2. '서울'은 화자의 소망과 지향을 함축하는 시어이다.(o,x)
3.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o,x)
4.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여 몰아일체의 경지와 그로 인해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O,x)
5. '부질없음'은 시어의 표면적인 의미와 다르게 '길'을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o,x)
6.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o,x)

B10. 김남조, 「설일」

() 내 죽으면 한 개 바위가 되리라.
 아예 애련(愛憐)에 물들지 않고
 희로(喜怒)에 움직이지 않고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억 년 비정(非情)의 함묵(緘默)에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머언 원뢰(遠雷)
 꿈꾸어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뜨려져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나)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종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恩寵)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攝理)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 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어미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긍정의 태도를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는 인간적 감정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가)는 시적 허용과 중첩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2. (), (나)의 시어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래'와 '소리'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경지이다.
- ② (나)의 '돌총계'는 화자의 극복 의지가 형상화된 대상이다.
- ③ (가)의 '애련', '희로'는 시적 화자가 극복해야 할 속성 혹은 관념들이다.
- ④ (나)의 '겨울나무'는 화자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자연물이다.
- ⑤ (나)의 '겨울나무'와 '바람'의 외적 갈등은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을 부여하는 원동력이다.

B11. 김광섭, 「생의 감각」

여명의 종이 울린다.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다 내게서 간다.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 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 1. 시간의 흐름을 변화하여 입체감을 드러내고 있다.(O,X)
- 2. '여명'의 종은 다시 생명력을 되찾은 화자의 상황과 관련되며, 2연의 깨달음의 내용과 이어진다.(O,X)
- 3. '흐린 강물', '황야'는 화자로 하여금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는 대상이다.(O,X)
- 4. 부정적 상황 속에서 얻은 생명, 존재에 대한 깨달음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O,X)

5. '닭이 운다'를 통해 과거 화자가 겪었던 상황이 촉발하는 비애감을 확인할 수 있다.(O,X)

B12. 박재삼, 「겨울 나무를 보며」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 축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 글은* 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씻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굿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여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A)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 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B)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
 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
 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때 글은_ 때에 그은. 때가 묻어 검게 된.
 *앞대_ 남쪽.
 *울력_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함.

(나)
 스물 안팎 때는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들여
 갈피를 못 잡는 그리움에 살았다.
 숨 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제 마흔 가까운
 손등이 앙상한 때는
 나무들도 전부
 겨울나무 그것이 되어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을 벗어 버렸다.

비로소 나는 탕에 들어앉아
 그것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부우연 노을 속 한 경치로써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다)
 겨울나무와
 바람
 머리채 긴 바람들은 투명한 빨래처럼
 진중일 가지 끝에 걸려
 나무도 바람도
 혼자가 아닌 게 된다

혼자는 아니다
 누구도 혼자는 아니다

나도 아니다
 실상 하늘 아래 외톨이로 서 보는 날도
 하늘만은 함께 있어 주지 않던가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의 어디쯤이다

이적진 말로써 풀던 마음
 말없이 삭이고
 얼마 더 너그러워져서 이 생명을 살자
 황송한 축연이라 알고
 한세상을 누리자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김남조, 「설일(雪日)」

1.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O,X)
2. (가)와 (다)는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O,X)
3. (나)의 1연에 ‘갈피를 못 잡는’에서는 방황하던 화자의 과거 모습이 드러난다.(O,X)
4. (나)의 2연에 ‘이제’와 3연 ‘비로소’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화자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한다.(O,X)
5. (나) ‘겨울나무’는 화자를 둘러싼 현실 세계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O,X)
6. (가)의 A와 B는 화자의 회상의 의미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다.(O,X)

B13. 김혜순, 「별을 굶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 모두 붉
 은 흙 가면 같다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물려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달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대상을 관찰하며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대상의 삶에 대한 단면을 드러내고자 했다.
- ④ 의문형 어투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절망감을 드러내 공 있다.

2. 위 시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하철 환승역'은 현대인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1연의 '붉은 흙가면'은 현대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의미한다.

③ '밀물'은 무미건조함의 상징으로 현대인의 생명력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④ 4연의 '불가마'는 현대인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다.

⑤ 5연의 '붉은 흙 가면'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도 보이는 현대인의 열정적 삶의 에너지를 함축한다.

B14.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쫓는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1.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한 느낌을 부여하는 대립적 시어들을 사용하여 특정 대상과의 일체감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 ③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④ 색채어 및 대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생생함을 더하고 있다.
- ⑤ 현실 비판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시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춘수의 시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 ‘무의미시’의 시작 기법이나 형상화의 원리가 되는 묘사적이면서 기법적인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에 등장하는 풍경은 현실적 풍경이라기보다는 몽환적 풍경이다. 이러한 몽환적 풍경은 순수한 생명력 자체뿐만 아니라 쇠잔함의 생명력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김춘수는 서술적 이미지를 옹호하고, 특정 관념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있다.

- ① 1 삼월에 눈이 오는 샤갈의 마을의 전체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2행부터 나오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의 새로 돋는 정맥이 떠는 것은 생명력을 드러내지만 바르르 떠는 것은 동시에 쇠잔해 가는 생명력을 드러낼 수도 있겠군.
- ③ 제목에서 삼월에 눈이 온다는 설정 역시 생명의 약동과 소멸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해.
- ④ 아낙네들이 아궁에 제일 아름다운 불을 지피는 것으로 볼 때 소외된 계층이 화합을 이루는 민중의 생명력을 드러내는군.
- ⑤ 이 글 전반에 등장하는 상호 연관성이 떨어지는 소재들의 나열은 아마도 특정 관념을 배제하는 무의미시의 지향과 일치하는군.

- AB1 : X(나의 의지를 돕지 않습니다.), O, X(벗과의 대화가 시적 화자가 독을 차게 된 원인이 아닙니다.), O, O
- AB2: 2, 2(염주는 사랑의 속삭임의 추억과 관련이 깊습니다.), 5
- B1. x(치욕을 느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힘들며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x(미래의 시점), o, o, 4 (발바닥의 화자의 치열한 성찰 의지를 보이는 시적 용어입니다.)
- B2. X(대비되는 시어), O, X(금붕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다입니다.), X(머리를 부수면 억압에 저항하는 것이지요.), X(화자의 소망이 아니라 대상의 소망입니다.)
- B3. O, O, X(거울면은 부부 자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X(부에 대한 기대는 아니지요. 잘못된 의도가 삽입되었습니다.)
- B4. O, X(원경에서 근경입니다.), X(절망감이 아닙니다.), O, X(주제적 정서는 엄숙함과 관련이 없어요.)
- B5. X(안이 본래적-이상적 자아입니다.), X(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X(거울 속의 나의 외로운 사업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고 있습니다.), O, O(화자 자신도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간주관)
- B6. O(고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파들거리는은 불완전함, 고함치는 것은 비판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문제는 보기로 제시되니 너무 염려 마시길), X(흥미 있는 주관지와 정치 문제는 관련이 없지요.), X(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오히려 비판하는 것입니다.), X(음악적 효과는 심상이 아닌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X(선지를 조금 수정합니다.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B7. 4(산짐승들 역시 길을 잃었으니 폭력과 비이성으로 보기 우리가 있죠.), 3(술개가 눈보라에 맞서는 존재라고 볼 수 없습니다.), 1(군사 정권의 독재를 눈보라로 표현하고 있으니 관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넓게 볼 수 있습니다.)
- B8. X(까마귀는 오히려 암울한 정서를 환기하지요.), O, X(의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O, X(화자가 부러워하지요. 주체 변환)
- B9. x(바람은 길을 만드는 존재로 긍정적 의미), x(서울을 버리는 것이 지향), o, x(물아일체와 관련 없습니다.), o, o
- B10. 5(반어가 없습니다. 반어를 사용하면 시적 긴장이 조성되기는 합니다.), 3(애련, 희로를 넘어선 바위가 되고 자 하므로 애련, 희로는 넘어야 할 대상 맞지요.)
- B11. O(역행적 구성입니다.), O, X(채송화가 감각을 흔드는 것임), O, X(비애감이 아님)
- B12. X(시간의 흐름의 변화는 역행적 구성인데,(나)는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X((가)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O, O, X(겨울나무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지 화자를 둘러싼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지요.), O
- B13. 5(절망이 아니라 희망), 3(밀물은 무미건조함이 아니라 생명력)
- B14. 4, 4(무의미시이므로, 민중의 생명력이라는 의미를 담으면 안 됩니다.)

